"4차산업혁명 이끌 황금때 잡아라" 지구촌 주파수 전쟁

韓 등 42개국 5G 주파수 경매, 각국 이통사 '사활'

영국서 최종 낙찰가 1조7000억 호주・스페인・독일 등 경매 예정 15일 시작… 시작가 총 3조2760억

내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 한 첫 걸음인 5G 주파수 경매가 오는 15 일로 다가왔다. SK텔레콤·KT·LG유플 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8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모두 주파수 경매 '수 싸 움'에 뛰어들게 됐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 5G 주파수를 할당하는 첫 경매라는 데 의의가 있다. 5G 주파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밑그림이 된다. 정 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시작으로 내년 상 반기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는 목표를 제시했다. 5G는 롱텀에볼루션 (LTE)에 비해 최소 20배 빠르고,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0.001초이내로줄일수있어대규모트래 픽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국들도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경매를 마쳤거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통신부에서 김 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왼쪽부터),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임형도 SK텔레콤 정책 협력실 상무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나준비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 회(GSA)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6개국 113개 통신사업자가 5G 상용화를 준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G 주파 수 할당이나 5G 주파수 경매 준비에 나선 국가는 42개국이다.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나 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 인 오프콤은 지난 3월 5G 주파수 경매를 시 작했다. EE와 O2·쓰리·보다폰·에어스판

스펙트럼 홀딩스 등 총 5개 사업자가 경매 에 참여해 최종 낙찰가는 약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호주, 스페인, 독일, 미국 등이 5G 주파수 경매를 예정하고 있다.

5G 주파수 경매가 중요한 이유는 원활 한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5G에 적합한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LG 유플러스는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스 마트폰에 최적화된 '황금 주파수'로 불리 는 2.1기가헤르츠(胚)를 손에 넣음에 따 라 LTE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가입자 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향후 5G 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빅 이벤트'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3.5 (出(3.42~3.7(出) 대역의 280메가헤르츠 (Mb) 폭과 28Gb(26.5~28.9Gb) 대역의 2400 **贮**다. 이용 기한은 각각 10년, 5년이다. 특 히 3.50% 대역은 주파수 도달 범위가 비교 적 넓고 전파가 휘어지거나 통과하는 휘절 성이 강해 향후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 다. 때문에 이동통신 3사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폭을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

경매 방식은 2단계에 걸친 혼합방식인 '클락 경매'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입 찰에 참여할 양을 결정하는 경매가 진행 되고, 2단계에서는 위치를 정하는 '밀봉 입찰' 방식의 경매가 진행되는 식이다. 클 락 경매 방식은 2008년 영국의 주파수 경 매에서 사용된 바 있다.

경매는 서로 단절된 공간을 제공해 외 부 접촉을 최소화한다. 경매에 참여하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인들은 개인 소지품 을 일체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외부와의 소통은 과기정통부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두 대로만 가능하다. 인터넷은 차단된 채

미리 지정된 번호로 음성 통화만 하도록 설정됐다. 사업자들의 담합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대 50회까지 진행 되는 라운드는 보통 1시간 단위로 진행되 며,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정부는 최고 입 찰가격과 총 입찰 블록수 등을 알려준다.

경매시작가는총3조2760억원으로,그 간 진행된 경매 시작가 중 가장 가격이 높 다. 2011년에는 1조2000억원, 2013년 1조 9000억원, 2016년 2조6000억원이었다.

다만, 경매가 과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된다. 혼간섭 문제로 경매 에 나오지 않는 3.5㎝ 대역 20㎖가 다시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총량제한 폭 제한으로 사업자별로 비교적 균등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G 주파수 경매가 끝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5G 상용화를 위한 설비투자 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통 3사들의 연간 설비투자(CAPEX) 비용은 LTE 상용화 원년인 2011년에는 7조원, 2012년에는 8 조원대를 기록했다. 5G는 현재 LTE 보 다 진화된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 비용까지 더하면 초기 투자비는 10 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갤럭시S9+, 세계서 가장 많이 팔렸다

지난 4월 시장점유율 2.6%로 1위

지난 4월 세계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삼성전자의 '갤럭시S9+(플러 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애플 의 '아이폰X(텐)'은 3위를 차지했다.

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 치는 삼성전자 갤럭시S9+가 4월 세계 시 장 점유율 2.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했다고 밝혔다. 2위는 삼성전자 갤럭시S 9이 차지했으며 갤럭시S8도 판매 점유율 10위에 오르는 등 삼성전자 총 3개 모델 이 10위권에 올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아시아태평양 (APAC)과 북미(NAM) 지역을 중심으로 갤럭시S9 시리즈의 판매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마 에 2개 모델을 올렸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케팅 활동과 캐시백 제공 등을 통해 실적 증대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애플은 판매 10위권 내 가장 많은 5개 모델을 올려놓았다. 아이폰X은 2. 3%로 3위에, 아이폰8+가 4위에 올랐다. 이어서 아이폰8이 5위를 차지했고 아이 폰7은 9위로 나타났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판매실 적에 대해 계절적 요인으로 해석했다. 전 월 대비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여전 히 잘 팔리는 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 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중국업체인 샤오미의 레드미5A 가 6위를, 레드미5+・노트5가 8위를 차지 했다. 샤오미는 중국과 인도에서 빠른 성 장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판매 10위권 안

스타렉스 '대변신'… 리무진 시장 공략 박차

현대車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디자인 대폭 변경에 6.9인승 모델 편의 · 멀티미디어 사양 신규 적용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달라진 스타렉 스 리무진을 앞세워 프리미엄 리무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차는 11일 신차급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리무진 전용 사양을 대폭 적 용해 고급감과 편의성을 높인 '더 뉴 그 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의 본격적인 판 매에 돌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강인하고 웅장한 이미지를 더하는 하이루프는 설계 개 선으로 지하주차장(높이 2.3m)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17인치 전면가공 알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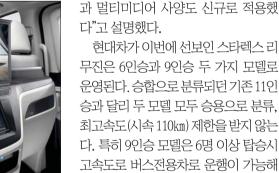


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 멀티미디어 파티션.

휠과 함께 공력성능이 약 30% 향상돼 연비와 고속주행 안전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무진 전용 서스펜션을 새롭 게 도입하고 루프와 바닥부 등에 흡차 음제를 확대 적용해 승차감을 높였다"

며 "실내도 스타렉스 리무진 전용 소 재와컬러로고급감을 더하고 다양한 편의사양



또 현대차는 스타렉스 리무진에 다 양한 편의사양과 멀티미디어 사양을 신규 적용했다. 뒷좌석 승객들이 주로 인도와 접한 오른쪽 문으로 타고 내리 는 것을 고려해 전 모델 2열 우측에 파 워 슬라이딩 도어를 신규 적용했다. 파 워 슬라이딩 도어는 2열 우측 도어 트 림의 손잡이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 뒤쪽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 승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신속한 이동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현대차가 이번에 선보인 스타렉스 리

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가격은 ▲6인승 5950만원 ▲9인승 4530만원이며, 하이루프와무드등•개인 독서등과 같이 하이루프에 적용된 사양 대신 듀얼 선루프를 적용하면 ▲6인승 5482만원 ▲9인승 4062만원으로 각각 468만원씩 내려간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美 고급호텔에 올레드TV 설치

호텔 솔루션 탑재… 총 45대 납품

LG전자가 미국 시카고의 고급 호텔에 호텔 솔루션을 탑재한 올레드 TV를 설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신축호텔 '메리어트마르키스시카고' 스 위트룸 등 객실과 부대시설에 LG 올레드 호텔 TV를 설치했다. 납품 규모는 55인 치 및 65인치 올레드 TV 총 45대다.

이로써 LG전자는 메리어트 마르키스 시카고에 기존에 설치한 LCD TV를 포함 해 총 1300대의 호텔 TV를 납품했다.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는 투숙객들은 올레드 TV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화질과 얇고 세련된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는 깔끔한 객실 인테리어와 LG 올레드 호텔 TV가 조화를 이뤄 투숙 객들이 한 단계 높은 품격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올레드 호텔 TV'가 객실에 설치된 모습

또한 이 제품은 호텔 관리자를 위한 편 리한 관리 솔루션을 탑재했다. 호텔 관리 자는 '프로 센트릭' 솔루션을 이용해 투숙 객이 객실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TV 화면 에 띄울 웰컴 메시지, 시설 안내, 관광 정 보 등 콘텐츠를 쉽게 편집할 수 있다.

'프로 이디엄' 솔루션은 유료 콘텐츠를 복사혹은배포할수없도록보안을지켜주 며, 유료 콘텐츠 시청 비용을 지불한 투숙 객들만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르노삼성, 국내 첫 '200대 한정' QM3 에디션

여름 시즌 한정 'QM3 RE-S 에디션'

르노삼성자동차가 2018 부산국제모터 쇼에서 여름 시즌에만 200대 한정 판매되 는 'QM3 RE S-에디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1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QM3 RE S-에디션은 아이언 블루를 새로운 바디 컬 자인 요소들도 대거 적용됐다. 차량 내부

러로 추가해, 보다 젊고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QM3는 기존 국내 판매하던 차량에 아타카마 오렌지, 아메 시스트 블랙, 쇼콜라 브라운 등 트렌디하 고 유니크한 색깔을 적용함으로써 남다 른 컬러 감각을 자랑해왔다.

QM3 RE S-에디션에는 감각적인 디



르노삼성 QM3 RE S-에디션..

에는 알칸테라 시트와 키킹 플레이트, 블 루 포인트 디자인을 적용해 더욱 고급스 러운 분위기를 완성했다.